

# 卷 頭 辭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長 金 桂 淑

1966 年은 서울大學校開校20周年을 맞아 本館으로서도 매우 뜻깊은 해이다. 20 歲輪을 지내는 동안에 本館은 多事多難한 激動期를 지내면서도 많은 發展을 이룩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中 特殊한 業務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中央圖書館과 各分館과의 體系化에 의한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의 機構整備: 開校 以來 20 年동안 서울大學校는 몇個 大學院과 10 餘個 單科大學으로 構成되어 發展하여 왔으나 各 單科大學의 圖書館은 中央圖書館과의 統一된 連結性이 缺如되어 왔기 때문에 서울大學校圖書館運營과 그 發展에 支障이 많았으나 지난 1965 年 國立學校設置令中改正에 의하여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에 分館을 設置하게 됨으로써 늦게나마 서울大學校全圖書館, 따라서 中央圖書館과 各分館과의 紐帶가 맺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綜合目錄作成 事業에 着手함으로써 많은 進展을 보고 있다.

둘째 本館의 宿願이던 各種圖書目錄의 出版: 本館에서는 1963 年 7 月부터 奎章閣圖書韓國本整理事業에 着手하여 1965 年에는 奎章閣圖書目錄 經, 史, 子, 集 및 補遺 5 冊을 油印物로 出版하였고 1966 年에는 이 奎章閣圖書韓國本の 書名總索引을 出版함으로써 奎章閣圖書整理의 半을 完遂하였다. 나머지 半인 現今 整理中에 있는 中國本の 圖書目錄은 新年度까지에는 出版할 豫定이다. 그리고 本館의 特定文庫인 一簣文庫(故 一簣 方鍾鉉教授 舊藏)와 가람文庫(가람 李秉岐教授 舊藏)가운데는 특히 國語國文學 및 書誌學關係의 貴重資料가 많이 있어 그 中에서 특히 古圖書만을 추려 일사·가람文庫 古書著者 目錄을 油印物로써 出版을 하였다.

셋째 文獻複寫業績: 本館에는 奎章閣圖書를 비롯하여 많은 貴重圖書가 있어 이를 마이크로·필름으로 複寫하여 國內外에 널리 普及함으로써 民族文化를 宣揚하고 學術研鑽資料로 提供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 월에는 電子複寫機(Xerox)를 設置함으로써 特別한 複寫用紙의 必要없이 每分當 1 枚

를 複寫하게 되어 文獻複寫事業에 劃期的인 發展을 보고 있다.

네째 貴重圖書展示： 開校20周年記念行事의 一環으로서 本圖書館에서는 1966年 10月 13日부터 10월 18日까지 6日間 貴重圖書展示會를 開催하였다. 여기에는 本館所藏圖書中 韓國인이 著述한 圖書, 韓國에서 出版된 圖書 및 韓國에 關한 圖書를 中心으로하여 1. 古活字本 2. 木版本 3. 國譯古典 4. 一般史料 5. 舊韓國新聞等 246種을 5部로 나누어 時代順으로 排列展示함과 同時に 出品圖書의 解題目錄을 發刊하여 韓國印刷文化史를 一瞥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함으로써 國內外 學者 및 研究家の 資料로 提供하여 多大한 成果를 본 바 있다.

다섯째 古典複刊事業： 우리나라 古典의 複刊事業이 重要하고 時急함은 말할 必要조차 없는 바 本館에서는 많은 貴重資料를 影印本으로 複刊하여 國內外로 널리 紹介하여 學術研究에 이바지 하고자 이제 늦게나마 古典影印事業을 始作하였다.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資料集 第一輯으로서는 「捷解蒙語」를 刊行하였으며 서울大學校 古典刊行會에서는 서울大學校古典叢書 第1輯~第3輯으로서 靑莊館全書 上,中,下卷 3冊과 第4輯 林園十六志(林園經濟志) 第1卷을 刊行하였으며 繼續하여 影印事業을 積極推進할 計劃으로 있다.

여섯째 書誌編纂： 本館에서는 各種書誌編纂事業을 始作한바 그동안에 作成完了한 韓國書誌關係文獻目錄과 高麗朝의 文集目錄을 本報에 收錄하여 研究家の 利用에 便宜를 提供하기로 하였다. 특히 今年에는 이와같이 通常業務外에 엮러가지 事業을 同時に 推進시키다 보니 豫定보다 本卷의 發行이 늦어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本館의 發展 成長의 「바로메타」로서의 本館報는 항상 좋은 資料와 統計를 提供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